2021
옳음(ORUM) 공익활동보고서
ORUM PRO-BONO REPORT

YK공익사단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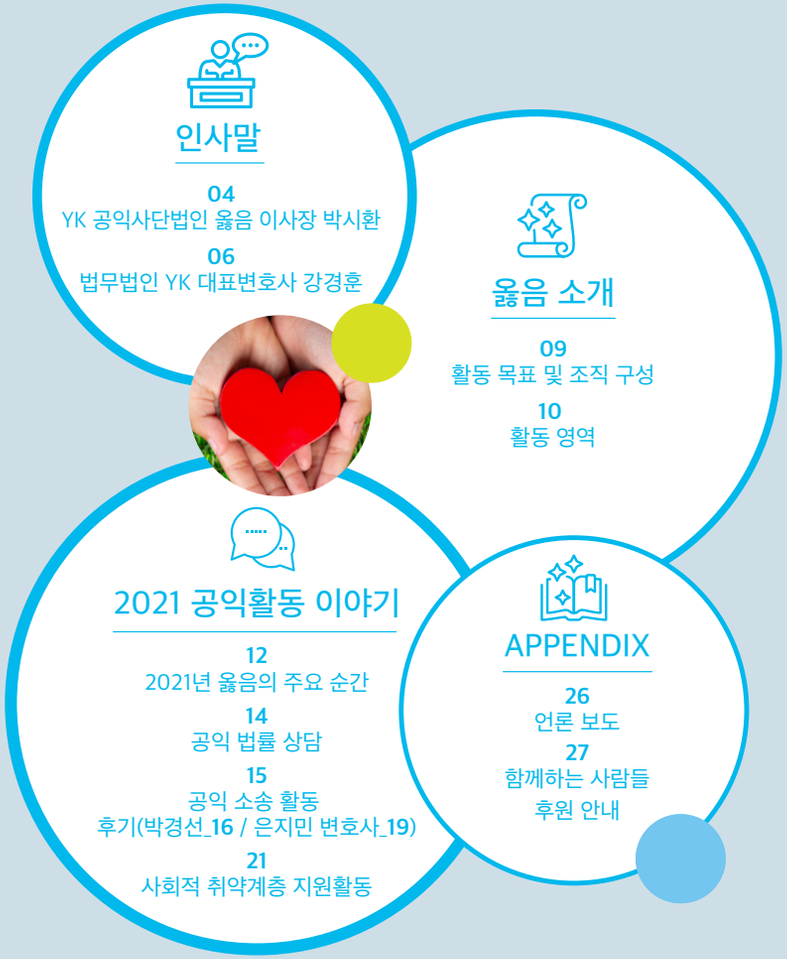
옳 음 의 가 치 를 향 해 나 갑 니 다

옳음의 가치를 향해 나갑니다

YK공익사단법인 옳음(ORUM)

2021 공익활동보고서

목차



인사말
04 YK 공익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박시환
06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강경훈

옳음 소개
09 활동 목표 및 조직 구성
10 활동 영역

2021 공익활동 이야기
12 2021년 옳음의 주요 순간
14 공익 법률 상담
15 공익 소송 활동 후기(박경선_16 / 은지민 변호사_19)
21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활동

APPENDIX
26 언론 보도
27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 안내

이사장
인사말



법무법인 YK의 공익사단법인 옳음은 2021년에도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소수자, 약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이어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대외활동이 제한되어 실제로 나타난 성과는 다소 부진하였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설립 2년차를 맞아 법무법인 YK의 구성원 중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었고 외부 회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머지않아 옳음은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 체제와 내실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내외부 회원님들과 법무법인 YK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에 옳음은 구례군 수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대리, 세 모녀 살인사건 형사재판의 피해자 측 대리 등 공익소송을 진행하였고, '강동꿈마을' 보육원의 에어컨 지원, 지역아동복지센터 '우리들의 공부방'에 간식 지원 및 코딩교육 등 공익지원 활동을 하였으며, 연말에는 법무법인 YK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핸즈온 키트'를 만들어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활기찬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익법인 옳음도 이에 발맞추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YK 공익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박시환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인사말



우리 '사단법인 옳음'은 '법무법인 YK'의 소중한 동반자이자 꿈입니다. 모든 변호사의 사명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법무법인 YK 역시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3년 전 '사단법인 옳음'이라는 묘목을 심었습니다.

우리 법조계의 큰 어른이신 박시환 전 대법관님과 여러 귀한 분들께서 힘을 합해 주신 덕분에 꾸준히 공익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피해 유가족, 구례 수해 피해 주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했고 코로나 19로 인해 커지는 교육격차로 소외 받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3년 전 심었던 묘목이 어느덧 자리를 잡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마음을 모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옳음'이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시어 경제적 지원을 해 주신 기부자님들, 바쁜 로펌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어 공익활동에 참여해 주신 변호사님들, 또 함께 연대하며 힘을 모아 주신 공익활동 단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옳음'이 가능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인권과 정의, 사랑과 봉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하고 귀한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 소중한 가치들이 외면 받는 때이지만 그렇기에 '옳음'이 추구하는 인권과 정의, 사랑과 봉사가 더욱 값지고 빛을 발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사단법인 옳음'과 '법무법인 YK'의 구성원들 모두가 소중한 가치에 공감하고 힘을 모은다면 분명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옳음'이 더욱 성장하여 여름날의 뜨거운 뙤약볕에 그늘이 되어주고 거친 바람이 불 때 풍파를 막아줄 든든한 나무로 성장할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강경훈

01

옳음 소개

활동 목표
조직 구성
활동 영역

활동 목표

ORUM

옳음은 서초동 소재 로펌 중 최초로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한 번 더 생각해 '더불어 나누며 함께 드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자 법무법인 YK에서 설립한 공익사단법인입니다.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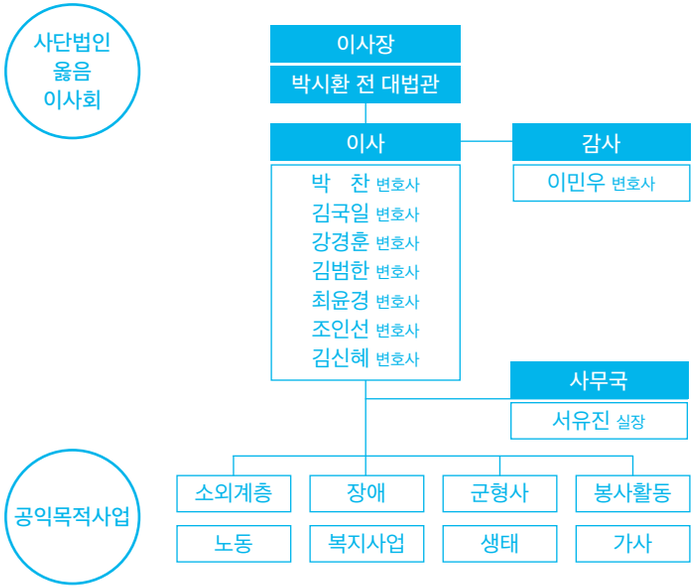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YK와 공익사단법인 옳음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프로보노(Pro Bono) : 라틴어 "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 " 라는 의미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직 구성



활동 영역

옳음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6개 분야를 중점으로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 정책개선 및 입법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취약노동, 직장 내 괴롭힘, 구직 중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합니다.

군(軍) 인권
장병 인권 수호와 제도, 법률 개선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동물권 및 환경보호
동물의 권리, 환경 관련 이슈에 대응하여 생명 존중에 관한 인식을 고양합니다.

여성 및 소수자 인권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장애 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자문 및 공익소송을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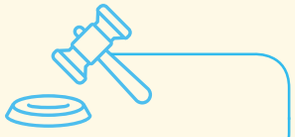
아동 인권
아동의 발달 보장, 아동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02

2021 공익활동 이야기

2021년 옳음의 주요 순간
공익 법률 상담
공익 소송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활동

2021 옳음의 주요 순간
옳음의 한 해 보기



‘세모녀 살인사건’ 공익 소송

살해된 세 여성의 유가족을
대리하여 재판 과정에 필요한 법률 자문과
법적 대응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1.04

아동양육시설 에어컨 지원 사업

서울시 강동구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강동꿈마을의 시설환경을 살펴보고,
에어컨 지원을 통해 다가올 여름 무더위를
대비하여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례군 수해 사건 공익 소송

집중호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구례군민을 대리하여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피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05

공익소송사건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공익사건 지원에 관한 심의, 의결 기구로
공익사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 하였습니다.



07



비대면 봉사 활동

법무법인 YK 임직원들과 함께 비대면
봉사 활동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핸즈온 캠페인을 진행하며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공부방’ 코딩교육 지원,

옳음이 주관하고 한성대학교와 현대건설이
후원하여 ‘우리들의 공부방’ 아동들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0

‘우리들의 공부방’ 간식 지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우리들의 공부방’ 시설 운영 어려움 및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재개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



공익 법률 상담



옳음 홈페이지 '공익 법률 상담소' 게시판을 통한 공익법률 상담

옳음의 법률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법률 소외계층들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익명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권, 군 인권, 여성 및 소수자 인권, 장애 인권, 동물권 및 환경보호 등 전통적인 공익인권 법률 분야 뿐만 아니라 기타 그 목적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이며 즉각적인 법률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담을 넘어서 소송을 통한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익소송으로 선정해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 소송 활동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익소송 활동'

사단법인 옳음은 법무법인YK와 함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있는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례군 수해 사건' 공익 소송

2020년 8월 구례군에는 평균 400mm의 집중호우 여파로 5개 상류 댐(섬진강 · 용담 · 대청 · 합천 · 남강)에서 방류량을 늘리면서 강물이 넘쳐 주변 주택 및 농가에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민들은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 하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배상을 요구해왔으나, 위 단체들은 배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옳음에서는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파악하여 법적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송 대리, 인지대 보조 등 지원을 하는 한편, 소송 결과를 떠나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준비 역시 보조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진행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늦어질 우려를 제기하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 수위 변화에 따른 피해도 환경분쟁 조정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한 후 개정 법률에 따라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절차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구례군 수해 사건’ 공익 소송

후기



박경선 변호사 / 법무법인YK 광주지사

수마에 지친 주민들, 그들의 고통에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며

2021년 2월, 한적하고 평온하기만 한 곳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 들어가는 건물마다 수마가 지나간 상흔이 가득함을 보았고, 제 키보다 높은 부분에까지 침수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례군을 마주했습니다.

2020년 8월 발생한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수해는, 세상 순박하게만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쉽지 않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남겼고, 제가 구례군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어디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다’, ‘자신들이 보상하겠다’와 같은 적극적인 제스쳐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 중 일부는 분노와 억울함을 억누르며 앞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우리를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주민 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보상을 도모하고 있었으나, 혹여나 오랜 기간이 지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제서야 소송을 진행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집단소송 역시 당장 진행해야 하며 법무법인YK와 공익사단법인 옳음이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주민들은 박수로 환호하며 함께 해보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구례군에 몇 차례 더 방문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수해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의 결과들 역시 정리하며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피고였던 대한민국, 전라남도, 구례군,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관리에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면서 모두 저마다의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예상보다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져만 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주민들을 겁주기도 하였고, 그럴 땐 환경부 담당 직원과 직접 연락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상 대상자가 많아서인지 다른 지역과 달리 낮은 보상 비율을 책정한 결과물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구례군에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주민들은 비록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책임 소재가 분명해졌고 보다 나은 소송결과를 지켜보기까지는 너무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아 이쯤 하면 됐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분노를 직접 받아야 할 때도 있었고, 함께 화를 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접 주거와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비록 끝까지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피해 주민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어느새 연고도 전혀 없던 구례군이 이제는 제 가슴 속에 아련한 장소로 남게 된 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엿한 인연임은 분명합니다.



‘세모녀 살인사건’의 공익 소송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여성(어머니와 딸 자매)을 살해한 범인 김태현은 피해자 모녀 가운데 큰딸 A씨를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경부터 연락을 주고받다가 3번 정도의 만남을 가졌고, 피해자 A씨에게 호감을 갖게 된 김태현은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자 2021년 1월부터 A씨를 상습적으로 스토킹 하였습니다.

A씨에게 앙심을 품은 김태현은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2021년 3월 23일, 김태현은 A씨의 집을 알아낸 뒤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여 A씨의 집에 침입 후 혼자 있던 A씨의 여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5시간 후 귀가한 A씨의 어머니, 그로부터 1시간 후 귀가한 A씨까지 연이어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사단법인 옳음은 법무법인 YK와 함께 피해자 유가족을 위해 재판 전체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1 · 2심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총 7회 참석하고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항소심까지 유가족 법정진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의 무기징역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옳음은 이후에도 피해 유가족들의 재산 상속,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구조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관하여 상담, 자문, 피해자 대리 등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모녀 살인사건’의 공익 소송

후기



악귀(惡鬼)가 저지른 참극 속에서

은지민 변호사 / 법무법인YK 서울본사

김태현이라는 이름의 악귀가 저지른 참극은 2021년 3월 말경 대한민국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으며, 유가족분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심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YK 공익사단법인 옳음에 연락하였고, 법무법인 YK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저는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것이 법조인의 기본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김태현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를 환부받기 위하여 유가족분들과 함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찾아갔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얀색 컴퓨터 본체를 뒤덮은 다량의 혈흔... 참담한 심정으로 컴퓨터 본체를 바라보는 유가족분들의 모습.

악귀가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악귀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본 김태현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는 악귀의 모습,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악귀의 태도.

검찰은 1심 결심 공판 당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유가족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악귀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원통함 때문에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젖은 유가족분들의 모습을 보며, 항소심에서는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어떻게든 도출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김태현에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대 · 내외적 문제로 인하여 김태현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석방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결정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의 심사와 판단에 어느 정도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 형벌 체계를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가석방 관련 의견을 명시적으로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김태현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원혼을 달래드리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신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YK 공익사단법인 옳음의 변호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악귀가 벌인 참화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분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분들이 더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활동

강동꿈마을 에어컨 지원 사업

지난 4월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아동양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미산 '강동꿈마을'을 방문하여 시설환경을 돌아보고 보육원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논의 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강동꿈마을 보육원에서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악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다가오는 여름 무더위에 대비하여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 차원으로 에어컨 2대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동꿈마을 보육원생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부방 간식 및 코딩교육 지원 (멘토링)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우리들의 공부방'은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지역아동복지센터로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편부모 가정 등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과 보호 및 양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에 도움을 주는 복지시설입니다.

사단법인 옳음은 2020년에 '우리들의 공부방'과 청소년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아이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진로상담을 지원해왔습니다.

2021년 10월,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청소년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게 되어, 사단법인 옳음은 '우리들의 공부방'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지원하고, 꿈꾸고 도전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수행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12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교육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수준의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사단법인 옳음이 주관하고 한성대학교와 현대건설이 후원하여 '우리들의 공부방' 아동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성대학교 IT융합공학부 조혜경 교수 주관 교육로봇 연구실에서 직접 개발한 로봇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MOCCA Studio'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함수는 물론 자연스럽고 지능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영상 기반 지능 함수(얼굴 인식, 성별 인식, 연령대 인식 등) 및 자연어 기반 지능 함수(대사에 알맞은 표정, 동작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모듈, 긍정/부정 대답 인식 등)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로봇의 말, 표정, 행동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공부방' 멘토링 지원 사업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핸즈온 캠페인

지난 연말, 사단법인 옳음은 법무법인 YK 구성원들과 함께 비대면 봉사 활동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핸즈온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손에 정성을 담는다'는 의미의 '핸즈온' 봉사활동은 봉사자가 기부물품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사단법인 옳음은 코로나19 등으로 자원봉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핸즈온'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과 사단법인 글로벌 비젼을 통해 핸즈온 키트를 구입하고 법무법인 YK 구성원들의 참여로 핸즈온 키트를 조립 제작한 후 제작된 제품을 회수하여 해당 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장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미아 방지 키링 만들기, 한 부모 가정 및 국내 취약계층 아이들의 놀이이자 새로운 친구가 되어줄 칼림바 악기 만들기 등 수혜자들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핸즈온 키트를 제작하여 관련 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흥미롭고 손쉬운 참여가 가능한 핸즈온 캠페인을 통하여 법무법인 YK 구성원들과 함께 옳음의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핸즈온 캠페인은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봉사활동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기에,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03
Appendix

언론 보도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 안내
보고서 정보

언론 보도

(국민일보 2021.08.04)

"작년 여름 수해는 폭우 · 하천관리 부실이 빚은 천재이자 인재"

피해지역 주민대표와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조사용역 전 과정에 참여해 자문 · 감독 역할을 했다. 조사결과 섬진강댐, 용담 · 대청댐, 합천 · 남강댐 하류 158개 지구에서 8,356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KBS 2021.09.13)

'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피해자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고…"]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로이슈 2021.11.16)

YK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전개

YK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의 박시환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위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과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문상담, 법정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매거진 2021.12.22)

YK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 현대건설과 한성대 후원으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코딩교육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등교가 어려워지고 원격 수업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공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가정 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YK 공익사단법인 옳음이 주관하고 한성대학교와 현대건설이 후원하여 사회적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다.

함께하는 사람들

2021년 한 해 동안 사단법인 옳음을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원 및 정기후원자(가나다순)

강경훈	고혜주	김범한	김주미	박 찬	서유진	안경복	이명헌	이응돈	조인선	법무법인YK
강규상	곽태영	김병엽	김채민	박경선	서정빈	오영근	이민우	이지용	최경진	
강상용	구태본	김상헌	김태환	박세영	서정우	유하영	이상환	이형근	최윤경	
강예리	구헌재	김승현	김판곤	박순범	서준범	은지민	이선영	임종덕	최종헌	
강종구	김국일	김신혜	김학훈	박시환	송준규	이동곤	이선우	장정훈	함진규	
강하늘	김동섭	김아름	류중국	배연관	신문기	이동균	이성현	정용선	허민강	
고위문	김민정	김영수	민지환	변광호	신승희	이동준	이용주	정용하	황현조	

일시후원자(가나다순)

마이클제임스랜드리	전진구	조동주	조은경	조혜경

후원



후원해주시는 모든 기부금은 공익사단법인 옳음의 활동에 사용되며
기부금 사용내역은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후원 계좌 및 문의 | 하나은행 229-910031-02204 (예금주: 사단법인 옳음)
연락처 02-533-0325 | 이메일 orum@yklaw.net

보고 기간 및 보고 범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관련 정보

보고서는 국문으로 발간되었으며,YK 공익사단법인 옳음(http://www.ykorum.com/orum/)을 통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옳음의 활동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YK공익사단법인
옳음 ORUM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5층(우림빌딩)
지번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3-3 우림빌딩
Tel | 02-533-0325 / Email | orum@yklaw.net